



“나, 이용대야” 11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 이용대(왼쪽)가 스매싱하고 있다. 이용대-김기정의 남자복식조가 2대 0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화순 NH농협 홈런 5방 '폭발'

제 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 준결승 천왕리그 자연환경 1·4회 10점 몰아쳐 결승행

화순 NH농협, 화순 에슬레틱스, 자연환경이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 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준결승 3경기가 10·11일 분량구장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렸다. 10일 분량구장에서는 전남리그 준결승 승부가 펼쳐졌다. 화순 NH 농협은 장성 랜드로스를 13-6으

로 꺾고 가장 먼저 결승 무대에 올랐다. 1회 랜드로스가 문준호의 솔로포를 앞세워 2-0으로 앞섰지만 이어진 1회말 NH 농협의 강영철이 동점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2회 홍기남과 김대경의 홈런으로 4점을 더한 NH농협은 3회 정길호의 한방까지 더해 화끈한 화력을 선보였다. 1회 동점포를 기록했던 강영철은 6회 투런포까지 터트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화순 에슬레틱스는 화순 야구파크의 기권승으로 7-0 승리를 거두며 화순 NH 농협과 우승을 다투게 됐다. 11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는 천왕리그 준결승 1경기가 치러졌다. 자연환경이 1회부터 5점을 뽐내며 허버 베이시블을 상대로 11-4 승리를 거뒀다. 자연환경의 김기동은 4회 승리를 자축하는 홈런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천왕리그 준결승 두번째 경기와 지·인왕리그 준결승경기는 우천으로 연기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천왕리그 스코어보드

- ◇전남리그
 - ▲1경기
 - 장성 랜드로스 2100102-6
 - 화순 NH농협 242023X-13
 - △승리투수 : 정길호
 - △홈런 : 문준호(1회1점·랜드로스), 강영철(1회2점, 6회2점)
 - 홍기남(2회3점)·김대경(2회1점)·정길호(3회2점·이상 NH농협)
 - ▲2경기(가린스)
 - 화순 야구 파크 0000000-0
 - 화순 에슬레틱스 1111111-7
- ◇천왕리그
 - 허버베이시블 1000300-4
 - 자연환경 510500X-11
 - △승리투수 : 유진우
 - △홈런 : 김기동(4회3점·자연환경)

이용대 남자복식 금

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 한국 금 3개 싹쓸이

한국이 안방에서 열린 세계대학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한국 선수단이 11일 염주체육관에서 끝난 2012 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남자복식과 혼합복식 금메달을 획득했다. 8일 이용대를 앞세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3, 은1, 동4개의 눈부신 성과를 냈다. 한국 배드민턴의 차세대 주자 김기정은 대회 마지막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추가, 대회 3관왕이 됐다. '금빛 윙크' 이용대도 한국의 첫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남자복식 금메달을 이끌며 2관왕에 등극했다. 남자복식에 나선 김기정과 이용대는 결승전다운 파워싸움을 벌이며 대만의 쉐론허-린엔주이조를 2-0으로 꺾었다. 1세트에서 근소하게 앞서가던 이용대-김기정조가 17-17 동점을 허용했다. 상대 범실로 18-17로 다시 리드를 잡았지만 18-18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중력 있는 승부로 3점을 잇달아 뽑아내며 21-18로 1세트를 마쳤다.

2세트 시작과 함께 선취점을 내준 이용대-김기정 조가 스매싱 공격으로 1-1을 만들었다. 상대의 호흡이 맞지 않은 사이 4-1까지 앞서갔지만 대만의 추격에 동점과 역전의 스코어가 반복됐다. 이용대의 스매싱으로 먼저 11점을 만든 이용대-김기정조는 이후 리드를 놓지 않으면서 21-16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대회 마지막 경기로 진행된 혼합복식 결승에는 한국의 집안싸움이 됐다. 결승에 진출한 김기정-김소영조와 강지욱-김찬미조는 대회 마지막 금메달을 놓고 3세트까지 승부를 벌였다.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강지욱-김찬미조가 22-20으로 1세트를 가져갔지만, 김기정과 김소영조가 21-19, 21-17로 2·3세트를 이기면서 최후의 승자가 됐다. 혼합복식 결승을 끝으로 지난 6일부터 진행된 6일간의 스매싱 대결은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엘리스 오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대표는 "속박, 식사, 수송 등 완벽한 대회준비와 더불어 정확하고 엄정한 경기운영 등 대학스포츠의 절정을 보여준 최고수준의 배드민턴대회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상훈·김상현 “내년엔 우승”

오키나와 캠프 맹훈련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 김상훈·김상현이 2009 영광재현에 나선다. 오키나와 마우리 캠프에서 김상훈과 김상현이 간절함과 또 책임감으로 구슬땀을 쏟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Again 2009'. 2009년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찬란한 해였다. 김상훈은 2009년 안방마님과 주장으로 선수단을 이끌며 V10을 이끌었다. 집중력 있는 타격과 한국 시리즈 1·2차전에서 보여준 투수리드와 도루저지도 빛났다. 하지만 한국시리즈 7차전 부상을 시작으로 끊이지 않은 부상이 김상훈을 괴롭혔다. 올 시즌에도 어깨수술의 여파에서 헤어나질 못한 김상훈은 “개인적으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내년에는 기필코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체력 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격면에서는 스윙 궤도와 스윙 스피드를 늘리는 게 급선무다. 수비에서는 순발력과 블로킹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시즌 주장으로 재선임되면서 김상훈의 역할이 다시 늘었다. 김상훈은 “최악의 해를 보낸 가운데 주장을 맡게 돼 사실 부담이 많이 됐다. 그러나 (서)재운이를 비롯한 선수들이 “2009년 우승 영광을 재현하자”며 힘을 주었다”며 “솔선수범하며 더욱 강한 팀워크로 내년 시즌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상훈



김상현

김상현에게도 2009년은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다. LG에서 친정으로 돌아온 2009년, 김상현은 무서운 한방으로 팀 1위 행진의 선두에 섰다. 기나긴 무명 생활을 끝내고 2009 MVP에 선정되며 프로야구에 새 역사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김상현도 부상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김상현은 “스프링캠프에서 컨디션이 좋았던 만큼 올 시즌 부상이 너무 아쉬웠다. 그것도 한 해에 두 번씩이나 부상을 당하며 팀 전력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했다”며 “타격

시 빠른 힘탄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참으로 ‘희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주장 김상훈 선배와 함께 팀이 게임에 대한 집중력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목표는 당연히 팀 우승이다. 개인적으로는 부상없이 한 시즌을 치르고 싶다. 홈런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홈런보다는 팀이 1점이 필요할 때 진루타나 번트를 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 부상없이 경기에 집중하면 홈런과 타점도 따를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A 다저스행 류현진 선발 경쟁

10승 투수만 4명 '투수왕국'

“괴물 투수” 류현진(25·한화·사진)에게 약 280여만을 베풀던 팀이 LA 다저스로 확인되면서, 계약이 성사됐을 때 류현진이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에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라 연착륙하기에도 유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경쟁한 동료와의 불꽃 튀는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다. 서부의 명문구단인 다저스는 특히 강력한 투수진을 자랑하는 팀이다. 지난 시즌 팀 평균자책점에서 3.34로 워싱턴 내셔널스(3.33)에 이어 내셔널리그 2위에 올랐다. 선발팀 평균자책점은 3.41로 내셔널스(3.40)에 이어 2위다. 2012시즌 14승9패와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한 윈슨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를 필두로 크리스 카푸아노(12승12패), 채드 빌링슬리(10승9패), 애런 하랑(10승10패) 등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한 선발만 4명이다. 여기에 조시 벤텡(7승14패)과 테드 릴리(5승1패) 등 절대 떨어지지 않는 수준급 선발 두 명이 뒤를 받치고 있다. 6명의 특급 경쟁자들을 이겨야 확실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배사모’ 남녀부 클럽 동반 우승

광주 9인제 연맹회장기 배구 42개 팀 600여 명 열린 승부

제6회 광주시 9인제 연맹 회장기 배구 대회가 10일 전남대학교 체육관 및 보조 경기장에서 열렸다. 남자클럽부, 여자클럽부, 자모부, 장년부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총 42개팀 6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린 승부를 펼쳤다.

배사모가 남녀 클럽부 동반 우승을 차지했고, 이영식·김용은씨가 각각 남녀 클럽부 MVP가 됐다. 백일초 (MVP 김익관)가 제서초를 꺾고 교직원부 우승팀이 됐다. 자모부 우승은 어룡초(MVP 조미현)가 차지했으며 장년부에서는 빛고을팀(MVP 유수연)이 1위에 올랐다. 김재욱·한금옥 심판은 최우수 심판상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전 상무시민공원 등서 열려

2012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11일 상무시민공원 등 5개소에서 중·고등부 축구 80개 클럽, 농구 60개 클럽 소속의 청소년 1500여명이 참가한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가 열렸다.

10일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3대3 농구 대회에서는 엄마독서삼다너올게요2기B(중등부)와 Clay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상무부(중등부)와 AC발로마팀이 축구 우승팀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